

'지구촌 태권도 큰 잔치'

전주국제대회 9~11일 화산체육관서 개최

지구촌 태권도인들의 큰 잔치 '2016 전주오픈국제태권도대회'가 오는 7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전주화산체육관에서 열린다.

강영수 전주오픈국제태권도대회 조직위원장(전북도의회 의원)과 신재룡 전주시태권도협회장 등 대회 관계자들은 30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2016년 전주오픈 국제태권도대회'의 공식 일정을 발표했다.

전주시태권도협회가 주최하고 전주오픈국제태권도대회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국내 선수단 1040명을 비롯한 세계 36개국의 선수단 1,400여명이 참가해 평소 같고 닦은 기량을 겨루게 된다.

특히 올해 대회에는 해외선수단의 참가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100여명이 늘어나고 세계 최정상 태권도선수들이 대거 출전, 4회째를

맞은 전주오픈국제태권도대회의 위상을 드높일 전망이다.

이번 대회의 A매치 품새 경기에는 세계품새선수권대회 8회 우승자 서영애 선수(한국)와 스페인국제오픈대회 우승자 신승환 선수(스페인) 등 세계 최정상 선수들이 출전한다. 또, A매치 겨루기 경기에도 세계선수권대회 2회 우승자인 김진진 선수(미국)와 2016년 중 국청도국제태권도대회에서 우승자 Prajwal bhoopal 선수(인도), 2014년 일본국제태권도대회 우승자 Syed zaher shah 선수(파키스탄) 등 우수선수들이 격돌한다.

대회는 오는 8일 선수단 등록을 시작으로, 9일 개회식과 A매치 품새·경연품새 경기, 10일에 A매치 겨루기가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조직위는 대회 마지막 날인 오는 11일에는 해외선수단을 대상으로 무주 태권도원과 전주 한옥마을을

탐방하는 시간을 마련, 전라북도도와 전주의 전통문화 및 관광자원을 알릴 예정이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이번 대회의 성공적인 추진과 더욱 중량감 있는 국제대회를 치를 수 있는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조직을 정비하고 자원봉사자 모집, 대회 운영진에 대한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전주를 찾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전주의 전통문화와 함께 전통스포츠인 태권도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오는 9일부터는 한옥마을 일원에서 매주 토요일 일일 시범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강영수 대회 조직위원장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전주시가 무주와 함께 세계태권도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태권도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과 함께 시민들의 많은 관람 및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김영재 기자



붕괴된 건물 출입구를 뚫어라 익산시 금마면에 위치한 7공수특전여단이 지난달 30일 규모 6.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해 대규모 다중이용시설이 붕괴된 상황을 가칭해 익산시와 익산소방서, 익산경찰서가 참여하는 민·관·군 통합 재난구조 훈련을 실시했다.

법률홈닥터가 동네를 찾아 간다

전주시, 시범동 6곳 매주 화·목요일 순회 무료법률상담

전주시와 법무부가 함께 운영해온 법률홈닥터 제도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변호사를 찾기 어려웠던 취약계층 및 소외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전주시는 '2016년 상반기 우리동네 법률홈닥터'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과 소외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정보제공 434건과 법교육 7건, 법률문서작성 10건, 소송구조·조력기관 연계 10건, 간담회·회의 15건 등 총 476건의 무료법률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률'과 '홈닥터'를 결합한 법률홈

닥터는 서민들을 위한 따뜻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서민법률주치의' 제도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사를 찾기 어려웠던 취약계층과 소외지역 주민들 중심의 맞춤형 1차 법률서비스를 금전적인 부담 없이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올 상반기 운영된 '전주시 우리동네 법률홈닥터'는 한글에 서툰 전주시 장애인과 노인 등을 대상으로는 법률 문서작성에 도움을 주고, 파산 및 이혼소송 준비중인 대상자에게는 지속적인 법률 상담을 지원하는 등 법률에 취약한 소외계층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우리동네 법률홈닥터는 지역거점기관인 전주시사회복지협의체에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들에게 법률상담, 정보제공, 법교육, 소송구조 알선, 문서 작성방법 등 1차 무료법률서비스(소송수행은 제외)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동네 복지 시범동 6개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나머지 동은 순차적으로 순회상담을 이어나가고 있다.

또한 학교와 복지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월 1회 찾아가 법률교육 및 상담을 진행하고, 전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실무부와 희망보드미 사재회의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영재 기자

동전 수백 개 훔치려다 '덜미'

덕진경찰서는 30일 빈 사무실에 들어가 현금을 훔치려 한 혐의(야간주거침입 절도)로 김모(16)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지난 29일 밤 11시50분경 전주시 덕진구 한 부동산 사무실에 침입해 책상 서랍 속 비닐 봉지에 들어있는 100원짜리 동전 680여개를 훔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군은 지난날 초 가출한

뒤 가지고 나온 돈이 다 떨어지자 돈을 훔치기 위해 범죄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사무실 내부를 뒤지다 백 원짜리 수백 개가 들어있는 비닐을 발견하고 훔치려 한 김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경찰조사에서 김군은 "집에서 가지고 나온 돈이 다 떨어져 배가 고파서 돈을 훔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인진수 기자

'공금 횡령' 노조 위원장 징유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30일 노조 공금을 빼돌려 개인용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도내 모 택시회사 노조위원장 A(57)씨에 대한 형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전국택시산업노조 의무납입금 등으로 써야 할 노조 공금 13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용주 기자

전국 무대로 아파트 털어온 40대 구속

김제경찰서는 30일 전국을 무대로 아파트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차모(48)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 2월 23일 오전 3시에 김제시 승암길 한 아파트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열린 창문이 발견될 때까지 한층 씩 올라가다 5층의 열린 창문을 통해 침입해 지갑에서 현금 45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

고 있다. 조사결과 차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경기도 11건, 경북 10건, 전북 4건 등 총 38회에 걸쳐 2100만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에서 차씨는 "몸이 아파서 일을 할 수 없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차씨가 검거 당시

스크린링마를 하고 있었고 5~6개월 단위로 대포차량을 바꿔 타고 다니는 등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적인 범죄로 의심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생활비를 마련을 위해 범죄를 저질렀고 현금만 훔쳤다고 말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귀금속도 사라졌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여외 수사가 진행되면 피해 금액과 범행 건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인진수 기자

전주 복합섬유소재산업 인도 진출 첫걸음

탄소융합기술원, 인도 자동차부품제조협회 초청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전주시가 지역 내 복합섬유소재기업의 인도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29일 인도자동차부품제조협회 초청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하고, 전주를 방문한 인도 자동차부품업계를 대표 CEO 18명과 도내 복합섬유소재산업 기업들과의 만남을 주선했다.

인도자동차부품제조협회(ACMA, 회장 알비드 바라지)의 이번 전주방문은 지난 2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인도 최대 자동차부품 전시회인 뉴델리 국제자동차부품박람회(Auto Expo 2016)에서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탄소융합산업연구조합 임원진과의 미팅을 계기로 추진됐다.

기술원에 따르면 인도 시장은 세계

경제시장 중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로, 특히 자동차 시장의 높은 수요로 인해 관련 자동차부품 산업도 오는 2021년까지 약 113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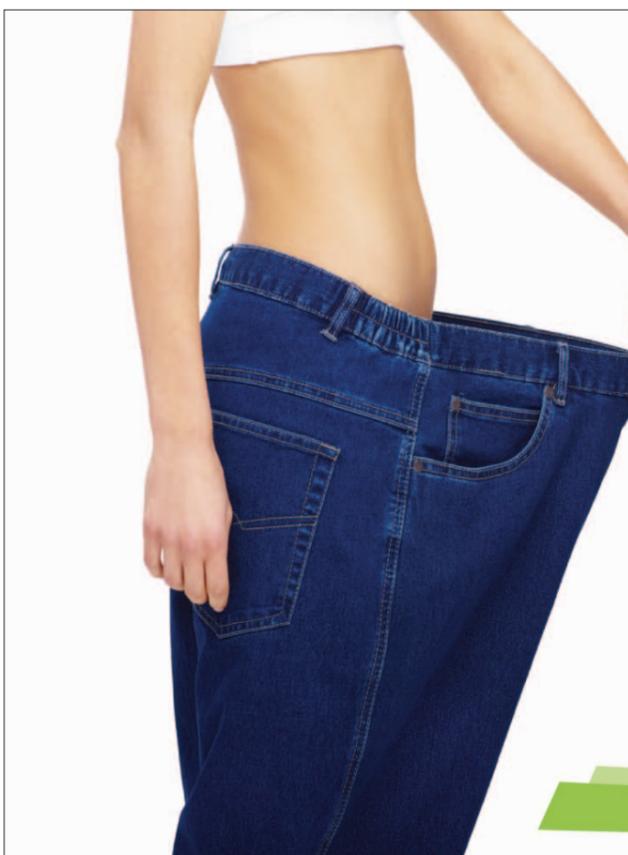
이번에 방문한 인도자동차부품제조협회 회원기업은 Lucas-TVS(모터, 필터), Mark Exhaust systems(머플러, 속업소버), Anu Industries(점화플러그, 스위치), GNA Axles(차축, 스프링), NRB Bearing(베어링류), RACL Geartech(변속기, 기어류) 등 자동차부품 전반에 걸쳐 18개 기업이 방문했다. 도내에서는 삼양사와 대우전자부품, 불스원소재, 원광이엔텍, 제논전장, 코스텍 등 10개 기업이 참여해 인도시장 진출을 위한 상담에 동참했다.

시는 이번 상담회에서 인도 시장의

고부가가치 창출 및 수요처연계 마케팅이 제공되는 만큼 전북지역 복합섬유소재 부품기업들의 실질적인 매출 상승으로 이어져 글로벌 스타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 관계자는 "인도 자동차부품제조협회 초청 비즈니스 상담회를 통해 경제불황으로 수출이 급감하고 있는 자동차부품 기업들의 수출 활성을 모색하고, 지역 기업의 수출인증 및 해외마케팅 등 기업지원 활동을 활발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본인이 뚱뚱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